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2022년 4월
서회 가정의 소식과 기도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유월절 Passover,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첫 유월절은 출애굽기 12
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노예 해방의 차원을 뛰어
넘어 하나님께서 절기 안에 숨겨두신 예수님을 발
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모아담, *matzah*, 정해진 시간)를 만
드시고 (창 1:14) 그것을 여호와와 절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스
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16,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
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
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히브리어
로는 '마짜'라고 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비
스켓 같은 빵입니다. 출애굽 할 때 급히 나와야 했
기에,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 시간이 없었기 때문
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것입
니다. 유월절 어린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의 몸을 생각할 때 마치 무교병의 모양은 예수님
의 몸에 채찍질과 손과 발의 못 자국처럼 보입니
다.

유월절 만찬, 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 때에도 바로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데, 떡으로 번역된 것이
이 무교병, 마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짜를 떼어
낸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

부수다', '쪼개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습니
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마짜를 내 몸이라고
하시며 쪼개고 부수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유
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
하여 자신의 몸을 쪼개고 부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므로 유월절을 성취하십니다.

올 해 유월절은 이번 주 4월 15일 부터 시작됩니
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
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
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
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
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 12:12-14)*

죽음의 재앙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
들을 지나갑니다. 죽음이 pass over 되어진 것입
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
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홍해를 pass over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
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
를 pass over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
된 본성은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3:14 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
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을 경
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의 첫 마
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라는 큰 산 앞에 불신앙
과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격노케 하는 죄악이었습니다. (히 3:15, 16) 결국
그들은 광야 40년 가운데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히 3:17)

광야를 pass over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오
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
문입니다.

히 3:18, 19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다음세대만이 요단강을 pass over하여 드디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월절은 안식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첫 유월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지만 광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우리가 첫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유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지막 요단강까지 pass over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식 및 기도제목

1. 현재 무슬림들의 라마단 기간을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7(목) 오후 9시경 팔레스타인이 텔아비브시 중심가 디젠고프 거리(Dizengoff Street)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격을 가해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테러는 3.22(화) 브엘세바 흉기테러, 3.27(일) 하데라시 총기테러와 3.29(화) 브네이 브라시 총기테러에 이어 연속으로 다중 밀집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한 테러로 약 2주간 11명의 이스라엘인과 2명의 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높아진 긴장감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두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알리야(‘올라가다’ 라는 뜻으로써 이스라엘 고토로의

귀환을 의미)가 더욱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4월 초 중반까지 총 8,371명의 우크라이나 이민자와 잠재적 이민자가 이스라엘로 입국하였습니다. 이 중 3,621명은 이미 알리야 승인을 받아 이민 비자를 받았고, 4,750명은 이스라엘에 입국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 유대인들의 알리야는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총 12,593명의 러시아 이민자와 잠재적 이민자가 이스라엘에 입국했고, 이 중 2,450명은 이미 알리야 승인을 받아 이민 비자로 입국했으며, 10,143명은 관광 비자로 도착했습니다.

- ✓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못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사야 49:22)
- ✓ 전염병, 전쟁이 임할 때 유대인들의 알리야는 항상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알리야는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알리야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들을 돕는 요셉의 창고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가정 소식

저희 가정은 3월 16일에 네게브의 삶을 마무리하고 북으로 올라왔습니다. 2월에는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로 몇 주간의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분주함을 내려 놓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강건하게 회복됨에 감사 드립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 동안 저희 가정을 네게브에서 마중물로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외롭고 메마른 곳에서 그 분을 향하여 매일 매일 갈망함으로,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물을 찾아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예배의 우물을 팠던 시간들을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네게브를 떠나기 전, 왜 브엘세바에서 거리 찬양 예

배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서약의 우물’이라는 뜻의 도시 브엘쉐바에서부터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우물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브엘쉐바 거리찬양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증으로 은혜의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특별히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히브리어로 예슈아를 목청껏 노래하고 눈을 뜨니 다섯명의 청년들이 저희 앞에 서있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알리아한 유대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예배를 마치기까지 기다리며 형제 나라와도 같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또 브엘쉐바에서 스페인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를 하시는 스파라딤 유대인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격려와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3년 반의 네게브의 여정을 마치게 하시면서 주신 은혜의 만남들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북쪽을 순회하며 거리 찬양 예배를 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갈멜산과 므깃도(이 두 장소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들입니다.)를 잇는 이스라엘 평야의 한 소도시 “요크네암 일리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북쪽 여정을 놓고 기도하던 중, 호세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평야에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감동을 주셨고 우연치 않게 요크네암 일리트라는 작은 도시를 알게 되면서 순회여정을 어느 정도 마치면 이곳에 정착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인 3월 초, 이스라엘 코로나 규정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듣던 로쉬 스기사가 대면 수업을 위해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과연 돌아다니며 학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첫 여정의 시작으로 머무르려 했던 갈릴리 기도의 집에 이스라엘 국경이 활짝 열림으로 많은 중보자들께서 오시게 되었고, 아이들과 작은 기도의 집에 여러 분들과 함께 머무르며 홈스쿨 하기에는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급하게 하루 만에 요크네암 일리트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열심과 계획들은 내려 놓을 때, 다시 한 번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물 흐르듯 따라가게 됨을 느낍니다. 진실로 감사한 것은 이 곳에 새롭게 정착하면서 세밀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하고 계신데, 이런 은혜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네게브의 살던 동네가 아닌 이스라엘의 다른 곳에 다시 정착해야 하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고 매일 불안감을 표현했던 에덴이가 얼마 전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이 곳에서 어떤 주님의 마음들을 나누어 주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진 우물물을 ‘carry’하는 자들로, 북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 넘쳐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도록, 날마다 주님께 자신을 겸손히 내어 드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스파라딤 믿는 유대인 사역을 하시는 조지 목사님과 동역자들



우크라이나계 유대인 청년들

†가정 기도 제목

- ✓ 북쪽에서도 계속해서 거리 찬양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장소와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 요셉의 창고가 도울 수 있는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지체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 ✓ 요셉의 창고가 유대인 알리야를 위한 기도와 재정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 에텐이와 유환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주세요.

항상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갈멜산-므깃도에서

로쉬 하다르 에텐 유환